
임진왜란 연표로 본 정기룡 장군

이 상 훈*

- I. 머리말
- II. 임란 경과와 장군 행적
- III. 활약상과 주요 장수
- IV. 맺음말

I. 머리말

임진왜란이 조선시대 가장 큰 외적의 침입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개국한 이래 별다른 외환없이 2백 년의 태평시기를 이어 오던 조선으로서는 일본군의 침입 앞에 무방비 상태로 국정의 난맥을 드러낸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전 세계는 문명의 발전 속에서 바야흐로 새로운 질서와 사조가 형성되고 있었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결속되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조선은 이런 변화를 알지 못한채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의 조정은 국도 서북쪽의 한 귀퉁이만을 남긴 채 전국토가 전쟁터로 변했으나 곧 자생력을 갖추었고 명군의 참전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조정의 초기 대응에 따라 전란을 수습할 것으로 믿었던 지휘관들이 몰락한 반면 전국 각지에서는 평소라면 주목받지 못했을 인물들이 새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몇몇은 가문과 신분, 당파를 떠나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위인으로 부상하

*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였다.

정기룡 장군도 대표적 예라 할 수 있으나 그의 공적에 비해 그간의 평가와 현상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II. 임란 경과와 장군 행적

임진왜란과 정기룡장군 활동 연표

일자		관련기사		관련인물		
연도	월일	임란전반	정기룡	조선	일본	명
1592년 宣祖25 萬曆20 文祿1 임진년	4.13	임진왜란 발발 일본군 절영도 상륙	31세 4월		고니시 유키나가 [小西行長]	
	4.14	부산진성 함락 정발 전사	우방어사 조경(趙敬)을 따라 남하	부산첨사 정발	"	
	4.15	동래성 함락 송상현 등 전사		동래부사 송상현	"	
	4.22	경상도 현풍에서 곽재우 의병봉기	4.23~28 거창-신창 전투	곽재우		
	4.26	상주 북천전투 패배	추풍령 전투에서 포로가 된 조경 구출	순변사 이일		
	4.28	충주 탄금대전투 신립 등 전사		도순변사 신립 김여물	고니시	
	4.30	선조파천		국왕선조		
	5.02	일본군 서울 입성			고니시	
	5.07	옥포 해전(거제)		전라좌수사	도도	
		일본수군 26척 격파		이순신	다카도라	
	5.10	명나라에 일본군침입 알림		신점		
	5.16	조선의 숙박지와 도로 건설 지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豊臣秀吉]	
	6.01	고경명 의병봉기		전 부사 고경명		
	6.06	용인 광교산 전투 경상·전라·충청도 3도 근왕병 패배		감사(경상:김수,전라:이광,충청:윤선각) 선봉장 백광언,이시지	와키자카 [脇坂安治]	
		1차 무계전투(성주) 일본군 1백여명 사살		의병장 정인홍·손인갑	무라카미 [村上景親]	

일자		관련기사		관련인물		
연도	월일	임란전반	정기룡	조선	일본	명
	6.08	일본군 선봉대 평양 대동강가 진출			고니시	
	6.14	광해군 분조활동시작		광해군		
	6.15	평양 함락 요동의 명군 압록강도강			"	요동부 총명 祖承訓
	7.08	웅치전투(금산) 정담 전사		전주판관 이복남, 김제군수 정담·해남 현감 변응정 광주목사 권율, 동북현감 황진	안코쿠지 [安國寺惠 瓊]	
		이치승첩(전주) 관의병 1,500명으로 일본군 1만 명 격퇴		전라좌수사 이순신, 우수사 이억기, 경상우수사 원균	고바야카 와[小早川 隆景]	
		한산대첩-견내량해전 : 조선3도 수군이 일본 수군 73척 중 47척 격파 12척 나포			와키자카	
	7.09	광해군 김천일을 창의사에 임명 안연역 전투(성주) 일본군 4백여명 사살		광해군 김천일 정인홍 김준민		조승훈
	7.10	제1차 금산성전투 전라도 관의군 7천여명 금산 눈벌[臥坪]에서 패배, 고경명 부자와 유팽로 등 전사 우척현 전투(지례) 일본군 1,500명 기습 승리		고경명 고인후 유팽로 전라방어사 곽영 의병장 김면	고바야카 와 [小早川隆 景]	
		한산대첩-안골포해전 :일본수군 주력 42척 격파. 남해의 제해권 완전 장악		이순신, 이억기, 원균	구키 [九鬼嘉隆] 가토 [加藤嘉明] 도요토미	
	7.14	일본수군의 대 조선수군 투금지령				
	7.17	제1차 평양성전투 명군사 3천명 및		도원수 김명원	고니시	

정기룡 장군의 인물과 활약상

일자		관련기사		관련인물		
연도	월일	임란전반	정기룡	조선	일본	명
	7.24	임해군(臨海君)과 순화군(順和君) 등 회령에서 포로로 잡힘		반도 국경인	가토기요 마사 [加藤清正]	
	7.28	영천성 수복		의병장 권응수 정세아		
	8.07	부산-서울 간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의병 진압을 위한 일본군 2만명 서울에서 경상도로 남하		경상좌병사 박진	기무라 [木村定光] 하세가와 [長谷川秀一]	
	8.18	제2차 금산전투 의병 7백 명 금산 연근평에서 전멸 명 비왜군무경략(備倭軍務經略) 임명-조선 방어 관장 일임		의병장 조현 승장 영규	고바야카와	병부우 시랑 송응창(宋應昌)
	9.01	부산포승첩 부산포 일본군 본진 공격 1백여 척 격침 명-일본 50일 휴전 합의	9월 초유사 김성일이 유병별장에 임명	이순신 이억기 원균	고니시	유격 심유경(沈惟敬)
	9.02	연안대첩 4일 전투로 황해 연안성(延安城) 포위 공격 일본군 격퇴		초토사 이정암 (李廷範)	구로다 (黑田長政)	
	9.08	경주성 탈환 비격진천뢰 사용		경상좌병사 박진(朴晉)		
	9.16	함경도 경성 탈환		의병장 정문부		
	10.9		살천창에 접근하는 일본군 격퇴			
	10.10	제1차 진주성전투 관군 3천8백명 등 일본군 2만 격퇴. 일본군 전라도 진출 저지	감사 김성일, 관계를 뛰어넘어 상주 (가)판관에 임명	진주목사 김시민 (金時敏)	기무라, 하세가와	
	11월		용화동전투 피난민과 상주목사 김해 구출			

일자		관련기사		관련인물		
연도	월일	임란전반	정기룡	조선	일본	명
	12월		상주의 증모현과 화령현 등지에서 참수한 일본군 수급 3백여 개를 관찰사 영에 수송 당교에서 의병과 합세하여 일본군 토벌, 수급 50여 개 획득	의병장 이봉·정경세·전식·조정·채유화·채유중		
	12.25	명군 본대 압록강 도강				제독
1593 宣祖26 萬曆21 文祿2 계사년	1.09	평양성 탈환	32세	김명원 유정(惟政)	고니시 유키나가	이여송 (李如松)
	1.27	벽제관(碧蹄館)전투 일본군기습으로 패배, 파주로 퇴각				부총병 양원 (楊元)
	2.12	행주대첩 전라관군 2천3백명 일본군 3만명 대파. 변이중 제작 화차 사용		전라감사 권율 변이중		
	봄		둔전 개설, 제방 수축, 영천 관곡으로 종자 보급			
	4월		명장 유정(劉綎) 사대수(查大受) 조승훈(祖承訓) 등 응접			
	4.13	선릉(宣陵: 성종의 묘) 정릉(靖陵: 중종의 묘) 도굴 사실 밝혀짐		고언백		
	4.29	경상우도 관찰사 김성일(金誠一) 진주에 서 56세로 서거				
	5.28		중훈대부(中訓大夫:중 삼품) 군자감 부정으로 승진. 정직 판관겸진관 병마절제도위가 됨			
	6.14	권율 도원수로 임명				
	6.19 ~ 6.29	제2차 진주성전투 일본군 약 10만 명의 공격에 조선군 3천 8백명으로 11일간 공방 끝에 함락. 성민	진주성 함락으로 부인 강씨 순절	창의사 김천일 경상우병사 최경희 충청병사	가토, 우키다, 고니시 등	

정기룡 장군의 인물과 활약상

일자		관련기사		관련인물		
연도	월일	임란전반	정기룡	조선	일본	명
	8.01	삼도수군통제사 신설-전라좌수사 이순신 겸직		진주목사 서예원		
	8.06	임해군, 순화군 석방				명사신 서일관(徐一貫)
	8월		명장 오유충(吳惟忠) 응접			
	10월		상주 가목사가 됨 충청·전라의 토적 토벌			
	11.30		평정 정직 상주목사로 승진되고 감사군대장 (敢死軍大將) 겸무			
	12.03	무군사(撫軍司) 설치 광해군 중심 전방에 설치한 임시 관청		광해군		
	12.23	경성서 별시 실시 시험과목에 조총사격 추가				
1594 宣祖27 萬曆22 文祿3 갑오년	2.01	훈련도감 설치	33세	도제조 유성룡 임명		
	6.10		선전관 권홍계의 딸과 혼인			
	6월	일본군 중 도망자 [항왜] 속출 -경상우병사 김응서 휘하에 수용	예천군 금야 등지에서 토적 토벌			
	7.03	경상좌도방어사에 권응수 임명	통훈대부에 가자됨			
	7.12	유정 서생포왜성의 가토 진영에 들어가 강화회담 진행과 일본군 동태 살핌				
	8.23		통정대부에 가자되고 토포사를 겸무			
	9.29 ~ 10.4 11월	장문포해전(1,2차) 조선 수군과 의병의 수륙 연합작전 조정에서 이순신과 원균(元均)의 불화 문제 논의		이순신 곽재우		

일자		관련기사		관련인물		
연도	월일	임란전반	정기룡	조선	일본	명
1595 宣祖28 萬曆23 文祿4 을미년	5.22	도요토미 강화회담을 위해 왜성 파괴 지시			도요토미	이종성 (李宗城) 양방형 (楊方亨)
	5.28	명 책봉사 이종성, 양방형 조선에 도착				
	6월	강화협상 진전에 따라 일본군 대부분 철수				
1596 宣祖29 만력24 慶長1 병신년	4월	명 책봉정사 이종성 부산의 일본진영에서 탈주			고니시	이종성 양방형 심유경
	5.10	울산 서생포 두모포 왜성 주둔군 일본으로 철수			가토 기요마사	
	6.27	명 책봉부사 심유경 후시미성에서 도요토미 접견			도요토미	심유경
	7.11	이몽학(李夢鶴)의 란 충청도 홍산현을 근거로 위세를 떨치다 진압됨		홍주목사 홍가신 (洪可臣)		
	8.23	분의복수장 김덕형 옥사 - 이몽학의 난 가담 혐의				
	9월	명-일 강화협상 결렬 명 책봉사 후시미성에서 도요토미와 회견 조선 재침 지시		황신	도요토미 고니시	양방형 심유경
					도요토미	
1597 宣祖30 만력25 慶長2 정유년	2월 초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나국	36세	선조		
	2.21	조선 재침을 위한 일본군 규모 확정			도요토미	
	6월		금오산성 방수			
	7.16	칠천량해전 전선 약 2백 척 침몰로 조선수군 궤멸, 배설 휘하 전선 12척 도주		삼도수군통제사 원균, 전라좌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와키자카 가토 요시아키	
	7.22	이순신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겸 경상·전라·충청 삼도통제사에 재기용				

일자		관련기사		관련인물		
연도	월일	임란전반	정기룡	조선	일본	명
	9.22 10월 11.15 11월 12.30		<p>절충장군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직첩 수령 합천 야로에서 일본군 수급 40급 획득. 안음 일본군 습격. 일본군을 습격하여 가조에서 수급 60개, 거창에서 수급 30개 참수. 선전을 당부하는 임금의 밀지 수령 경주로 이동하여 명 의 진에 소속</p>			
		조명연합군 울산성 포위		권율	가토 [加藤清正]	제독 마귀 (麻貴)
1598 宣祖31 만력26 慶長3 무술년	1.03 1.25 1월 1.26 2.07 2.18 2.24 2.28	<p>울산 왜성 축조 시작</p> <p>삼도수군통제영 고금도에 설치</p>	<p>임금의 유지 수령</p> <p>경상우도 본진 귀환 금산 아산촌, 상주 남청리 등지에서 일본군 사살, 참수 50여급 획득 거창 연송촌, 가조현 등지의 에서 일본군 1백여명 사살 임금의 유지와 밀부 수령 둔전 설치 대술하인 백흥제, 훈련원부정 박천기를 보내 삼가 일본군 사살, 주둔지 소각 가선대부에 가자 별장 한명련·군관 정구룡 파견 거창·지례 일본군 공격 금산군수 민정봉·지례현감 정홍에게 우지치 방어 지시</p>		가토	
				이순신		

일자		관련기사		관련인물		
연도	월일	임란전반	정기룡	조선	일본	명
	4.20		사근역전투 명 부총병 이절(李稅) 합세 함양 사근역 일본군 협격, 수급 3백개 획득 이절의 전사로 명 어왜총병관으로 임명 명군 7백명 지휘			
	8.18	도요토미 히데요시 후시미성[伏見城]에서 사망	3월~9월 거창, 함양, 가조, 삼가, 함천, 초계 등지의 일본군 수시 토벌 명군 및 조정에 일본군 토벌 수차 건의		도요토미	
	8.22	이순신 도요토미 사망 보고				
	8.25	5봉행 이시다[石田三成] 부산에서 시마즈[島津義弘] 등과 노획물 수송, 일본군 퇴각 논의			이시다 시마즈	
	9.20		명 제독 동일원 등과 합세 진주성 수복			
	9.21	왜교성전투 명 서로군과 조선 수군 합동으로 순천 왜교성의 일본군 열흘 간 공격			고니시	유정 (劉綎) 진린 (陳璘)
	9.22		고성 영성 수복			
	9.23		곤양 수복			
	9.28	사천전투 명 중로군과 조선군 연합으로 사천왜성의 일본군을 공격. 일본군의 역습으로 성주로 퇴각	사천전투에 조선군 지휘관으로 참전 명군의 패퇴 속에서 인솔병력 손실 없이 퇴각		시마즈	동일원 (董一元)
	10.02	영의정 류성룡 사직				
	11월		단성에 주둔			
	11.16		사천에 진격하여 시마즈 주둔지 수습			

일자		관련기사		관련인물		
연도	월일	임란전반	정기룡	조선	일본	명
	11.19	노량해전 조선 수군과 명 수군 연합 함대 남해 노량에서 일본군을 공격 2백여 척을 격파. 이순신과 명 수군 등자룡 등 전사				진린 (陳璘)
	11.24	일본군 부산에서 완전철수				
	12월 초		창원 경상우병영에 주둔 전쟁 종결후 수습 시작			
1599	1월 2월	명군 한성 집결 명군 본국철수 개시				

Ⅲ. 활약상과 주요 장수

이상 연표상으로 정기룡 장군의 행적을 살펴보았다.

그의 임진왜란 중의 행적은 크게 활약상과 지역성을 감안할 때 다음의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① 1592년 4월 ~ 동년 10월

정기룡이 경상우도에서 참전한 시기이다.

전쟁 발발 후 우방어사 조경 휘하로 참전하여 거창 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고, 고향으로 돌아와 곤양성을 수비하고 진주 등지에서 소규모 전투를 벌였던 시기이다. 크게 활약한 점은 없지만 경상우도감사 김성일에 의해 발탁되어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② 1592년 10월 ~ 1597년 6월

정기룡이 상주 지역에서 활동한 시기이다.

영남지역의 대부분이 일본군의 점령하에 들어가고 각지의 행정, 군사 지휘체계가 무너지자 정기룡은 상주의 가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용화동전투에서 전과를 올리는 등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 정기룡의 부임에 대해 이 지역 사람들도 유능한 인물의 부임을 반겼다.

연보상으로는 곧 상주성을 수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 기록을 참조할 때 상주성의 수복전 참전은 차지하고 상주성의 수복 자체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정기룡의 상주에서의 활약은 오히려 일본군과의 전투보다는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와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정기룡은 남하하는 명군의 접응, 피란에서 돌아온 상주목 사람들의 구제, 계사 갑오년의 극심한 흉년 속에서 발호하는 도적의 추포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즉, 영남의 중심고을을 안정시켜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③ 1597년 6월 ~ 1598년 종전까지

정기룡이 경상우도지역에서 명군과 합세하여 전투를 벌인 시기이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정기룡은 금오산성의 방수하게 되면서 목민관의 입장에서 지휘관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그는 9월 충청도 영동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벌여 3백여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는데 이는 정유재란의 국면 전환을 가져온 전략상 매우 중요한 전투였다. 앞으로 이 전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후 한방면의 총지휘관인 경상우도병사이지만 자신이 직접 인솔하고 있는 4백여명의 군대도 먹일 군량조차 조달할 수 없는 극심한 군량난 속에서도 경상우도 지역 각지에 출몰하여 약탈을 일삼는 일본군을 토벌하였다. 또한 명군의 4로병진책의 수행에 따른 사천전투에서 종로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명군의 패전으로 비록 실패하였지만 자신 휘하의 병사는 온존하게 유지하는 지휘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임진왜란 중에는 각지에서 많은 장수들이 활약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종전후 선무공신의 책봉으로 이어졌다. 선무공신은 총 18명의 정공신과 총 9천6십명의 원종공신이 책훈되었는데 주로 명군 참전 이전인 임진왜란 초전의 활약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고, 대규모의 적과 벌인 주목되는 큰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정기룡은 선무원종공신 1등에 참록되었다. 그러나 실제 전장에서 활약한 지휘관 중에는朴翥의 뒤를 이어 명단 가운데 가장 상위에 기록되었다. 육전의 장수 중 曠재우, 박의장, 박경신, 김태허 등이 그의 뒤에 참록되었다.

정기룡과 비교할 수 있는 주요 지휘관의 임진왜란 중 행적을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순신(1545~1598, 인종 원년~선조 31 ; 임진왜란 중의 연령 48세~54세)
: 본관은 덕수, 자 여해(汝諧), 시호 충무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인 1591년 전라좌수사(정3품)가 되었다. 임진년에는 5월 4일 첫 출전하여 7일 옥포에서 해전을 치른 이래 5차례의 출정을 통하여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1593년 7월 한산도로 진을 옮기고 8월에는 신설된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어 1597년 2월 교체될 때까지 일본군의 해상을 통한 서진을 막고, 군비의 보강에 힘을 기울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고 6월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궤멸되자 다시 삼도수군통제사가 되었다. 9월 명량해전에서 왜선 30척을 격파한 후 이듬해 11월 노량해전에서 전사할 때까지 조선수군을 재건하였으며 명수군도독 진린과 순천에 주둔한 소서행장의 해상을 봉쇄하였다.

- 권율(1537~1599, 중종 32~선조 32 ; 56세~62세)
: 본관은 안동. 자 언신(彦愼), 호 만취당(晩翠堂)·모악(暮嶽). 시호 충장(忠莊). 부친은 영의정 철(轍)이며, 병조판서 이항복(李恒福)의 장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목사에 제수되었으며 의병을 모아 이해 7월 동북현감 황진과 함께 이치대첩을 이루어 호남을 보존하였다. 그해 가을 전라감사에 승진하였다.

12월에 도성 수복을 목표로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진하여 수원 독성산성에 포진하였다. 해가 바뀌자 행주산성으로 옮겼는데 일본군은 배후의 큰 위협을 제거하고자 도성에 모인 전군 3만의 병력으로 1593년 2월 12일 행주산성을 공격하였다. 권율은 치열한 접전 끝에 이를 격파하였고 6월 행주대첩의 공으로 도원수로 승진되어 영남에 주둔하였다. 1596년 잠시 해직되기도 했으나

곧 재임용되어 1597년 정유재란 시 명군과 함께 울산성전투, 순천왜성 전투에 참여하였다.

- 원균(1540~1597, 중종 35~선조30 ; 53세~58세)

: 본관은 원주.

1592년에는 경상우수사가 되었다. 임진왜란 발발 후 이순신, 이억기 등과 합세하여 옥포·당포 등지에서 연전연승하였다. 그러나 이순신과의 불화로 1594년 12월 충청병사로 전출되었으며, 얼마 후에는 전라좌병사로 전속되었다. 1597년 1월에 경상우수사 겸 경상도통제사로 임명되었으나 이해 6월 삼도수군을 이끌고 부산의 적을 공격하던 중 칠천량해전에서 대패하여 전라우수사 이억기, 충청수사 최호 등과 함께 최후를 마쳤다.

- 김응서(1564~1624, 명종 19~인조 2 ; 29~35세)

: 본관은 김해. 자 정보(聖甫). 초명 경서(景瑞)

평안도 용강출신으로 무과에 급제하여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평양전투에 참전한 공로로 포도대장에 올랐다. 명군의 남하 후 경상우병사로 강화회담 중 경상도의 방어와 강화회담의 뒷바라지에 힘썼다. 일본군 중 항복해 온 많은 항왜들을 휘하에 두기도 했다.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경상우도병마절도사가 되어 의령에 침입한 왜군을 격파하였다.

- 권응수(1546~1608, 명종 1~선조 41 ; 47세~53세)

: 본관은 안동. 자 중평(仲平), 호 백운재(白雲齋). 시호는 충의(忠毅). 경상북도 신령 출신.

1584년 별시무과에 급제하였고 경상좌수사 박홍의 막하에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에 돌아가 의병을 모집, 궤기하였다. 5월부터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격전 끝에 영천성을 수복하였다. 그 공으로 경상좌도병마절도사우후가 되었고 1593년 2월 좌도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후 경상좌도의 일본군 토벌에 많은 공을 세웠으며 1597년 9월 정유재란 때 함경·강원의 군사를 거느리고 명군과 함께 1·2차 울산전투에 참가하였다.

- 고언백(?~1609, 광해군 1)

: 본관 제주.

교동의 향리로서 무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원군수로서 대동강 등지에서 교전하였고 이듬해 양주에서 왜병 42명을 참살, 그 공으로 왕은 특별히 당상관으로 올리고 양주목사로 삼아 능침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후 경상좌도병마절도사로 승진하였으며, 정유재란 때는 경기도방어사가 되어 전공을 크게 세웠다.

- 박의장(1555~1615, 명종 10~광해군 7 ; 38~44세)

: 본관은 무안. 자는 사강(士剛). 시호는 무의(武毅). 김언기의 문인이며 경사에도 밝았다.

1577년(선조 10) 무과에 급제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 때에는 경주판관이 되었다. 7월에 박진이 병마절도사로 파견되자, 장기군수 이수일과 함께 경주성의 탈환작전에서 화차(火車)와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사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1593년 4월에는 군사 300여명을 거느리고 대구 파잠, 울산에서 많은 전공을 올려 당상관으로 특진되면서 경주부윤이 되었다. 이후 경상좌도의 일본군을 토벌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고 명군 5만명의 뒷바라지에 힘썼다.

- 광재우(1552~1617, (명종 7~광해군 9 ; 41~47세)

: 본관은 현풍. 자는 계수(季綬), 호는 망우당(忘憂堂). 시호는 충익(忠翼). 경상남도 의령 출신. 황해도관찰사 월(越)의 아들이고, 조식(曹植)의 외손서이며, 김우옹(金宇顥)과는 동서 사이.

1592년 4월 14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같은달 22일에 의병을 일으켜 기강의 정암진에서 서진하려는 일본군을 차단하였다. 10월에는 절충장군에 승진하여 조방장을 겸하고, 이듬해 12월 성주목사에 임명되어 삼가의 악전산성 수축에 힘썼다.

1597년 정유재란의 기미가 있자 경상좌도방어사로 현풍의 석문산성을 신축하였고, 8월 창녕 화왕산성으로 옮겨 성을 수비하였다. 그뒤 1599년 다시 경상

우도방어사에 임명되었으나 상중임을 구실로 나가지 않았다.

• 박진(?~1597, 선조 30)

: 본관은 밀양. 자는 명보(明甫). 시호는 의열(毅烈).

무신 집안 출신으로 임진왜란 직전인 1592년에 밀양부사가 되었다. 작원에서 패했으나 힘써 싸운 공로가 인정되어 경상좌도병마절도사로 임명되었고, 이후 병사를 수습하고 소규모의 전투를 수행하여 적세를 저지하였다. 9월 경주성을 공략하여 많은 수의 왜적을 베고 성을 탈환하였다. 이 결과 왜적은 상주나 서생포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고, 영남지역 수십개의 읍이 적의 초락을 면할 수 있었다. 1593년 독포사로 밀양·울산 등지에서 전과를 올렸고, 1594년 2월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같은해 10월 순천부사, 이어서 전라도병마절도사, 1596년 11월 황해도병마절도사 겸 황주목사를 지내고 뒤에 참판에 올랐다. 임진왜란 초기 왜적과 싸운 장수 가운데 두드러진 인물의 하나였다.

• 김태허(1555~1620, 명종 10~광해군 12 ; 38세~44세)

: 본관은 경주. 자는 여보(汝寶), 호는 박연정(博淵亭). 시호는 양무(襄武).

아버지는 호조참판 희로(希魯).

1580년(선조 13) 무과에 급제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 때 밀양성이 함락된 뒤 밀양부사로 임명되어 분전하였다. 이어 울산군수로 전임되고, 울산성전투에서 도원수 권율을 도와 전공을 세워 당상관에 올랐다.

IV. 맺음말

임진왜란은 많은 영웅을 탄생시켰고 그 중 정기룡도 중요 위인중 1인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그의 공적은 그다지 조명을 기회가 없었고 평가되지 못하였다. 연보상의 행적과 다른 기록과 맞지않는 부분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당시 활약한 여러 인물에 대한 재평가와 정확한 고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기룡의 경우도 정확한 고증을 통하여 그의 업적이 한층 빛날 수 있을 것이다.